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626호 (음력 12월 26일) 2024년 2월 5일 월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명절 대목 기대해 봐야지라~" 설 앞둔 광주 전통시장 북적

말바우시장 제수용품 손님 발길 이어져
가족 출동 상인들 오랜만에 '대목 미소'
광주 전통시장 2월 경기전망 전월비 5.1p ↑

"예전만치 대목 분위기가 안나. 그래도 곧 명절인 게 좀 낫것지라."

설 명절을 앞둔 4일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새벽 어스름이 여전한 이른 시간이지만, 좌판을 깔고 물건을 진열하는 시장 상인들의 손놀림이 밝은 전구 불빛 아래 분주하게 움직였다.

'알록달록' 오색전을 부치는 전집 상인은 전을 뒤집으면서 어묵 국물까지 데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생선가게 점포가 모여 있는 골목에서는 노란 새끼줄에 주렁주렁 엮인 먹음직한 굴비를 옆집보다 눈에 더 잘 띄게 걸어 놓기 위해 눈치 싸움도 벌어졌다.

아무래도 명절 대목 장날이기 때문인지 온 가족이 출동한 상점도 많았다.

한 정육점은 휴일 학교에 가지 않는 고등학생 딸을 데려왔고, 버섯가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시장에 나왔다.

평소에는 고생 시키지 않으려 시장에 데려오지 않지만, 대목 장날인 만큼 한 명의 일손이라도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

생선가게 한 상인은 "최근 들어 점점 대목 분위기가 나질 않는다"며 "휴일이라 직장을 쉬는 딸까지 데려왔는데, 장사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고 앓는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설 앞두고 평소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며 대목 장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했다.

상인의 우려와 달리 오전 9시가 넘어가자 말바우시장은 발디딜 틈 없이 붐비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왔다 갔다' 같은 곳을 2~3번 돌면서 가격과 품질을 비교했고, 상인들은 뒤돌아서는 그들에게 "아따! 그럼 더 깎아줄랑께!"라며 발길을 돌려세우기에 열을 올렸다.

과일 노점상 최모(78·여)씨는 "지난해 여름 폭염 탓에 전통시장에 오는 사람도 없었고, 과일 값이 급등해 찾는 사람도 없었다"며 "그래도 오늘은 차례상에 놓을 과일을 사려는 손님들이 꽤 있다. 오랜만에 장사할 맛이 난다"고 웃어 보였다.

광주지역 최대 상설시장인 양동시장도 제수용품을 장만하기 위한 손님들이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5m 남짓 폭 시장 거리는 상인들과 손님, 물품을 전달하는 수레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면서 북적였다.

시장 곳곳에서는 고사리와 죽순 등 나물을 삶는 냄새가 풍겼고, 반찬가게 앞에서는 호객에 나선 상인들의 쩌렁쩌렁한 외침이 울려퍼졌다.

전감용 명태포를 써는 상점과 붉은 조명 아래 고기를 써는 정육점 주변에는 손님들이 몰려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어물전에서도 제철을 맞은 새조개에 손님들의 관심이 쏠렸다. 새조개를 바라보던 한 손님이 1㎏ 8만 원이라는 가격에 흠칫 놀라자 이곳 주인은 급히 흥정을 시도했다.

어두운 경제 전망 속 저 마다 사정으로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상인들과 손님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명절을 앞둔 탓인지 면면이 밝았다.

반찬가게 주인 김모(45)씨는 "불경기가 길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을 수 없다"며 "올해는 철을 타지 않는 반찬 특성을 살려 호객에 공을 들이는 등 매일 가게 앞 문전성시를 이루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나물가게 주인 서원기(60)씨는 "얼마 전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장돌배기' 노점상을 했다. 단속에 걸릴까 쩔쩔매다 두 달 전 양동시장에 제대로 된 가게를 차렸다"면서 "내 가게를 얻고 맞는 첫 명절이라 기대가 크다. 이제는 볕들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설 명절을 앞둔 4일 오전 대목 장날을 맞은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이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한편 상인들의 설 명절 대목 기대감은 전통시장 경기전망지수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는 지난달 전월(40.8) 대비 13.2포인트(p) 급락한 27.6을 기록해 2021년 8월(27.5) 이후 30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설 명절이 있는 2월 광주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기전망지수는 64.3을 기록, 전월(59.2)보다 5.1p 오르는 등 대목을 맞아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 본 상인들이 많았다.

김희면 기자

이르면 금주 의대 증원 규모 발표…설 지나 의료대란 오나

성태윤 정책실장 "머지않은 시일 내 발표"
이례적으로 건보 종합계획 브리핑 서둘러
전공의 대응 논의…2020년 파업 재연 우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이번주 중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면서, 설 연휴 직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안팎에서는 설 연휴(2월9~12일) 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머지 않은 시일 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의 협의, 그리고 보건의료정책 심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다소 급박하게 이날 오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 일정을 잡은 것을 두고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년 뒤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에 기반해 올해 고3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년 동안 부족 인원을 해소하려면 10년 동안 연간 1500명을 늘려야 하는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많게는 2000명 안팎의 정원을 늘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9년 째 동결된 상태다. 단순히 1500명을 확대한다고 가정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의 1.5배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발표하는 수치는 증원하는 총 인원수로, 어느 의대에 얼마나 많은 정원이 돌아갈지는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확정되는 4월까지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대규모 증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표 직후 파업 등 의사들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7월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에도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파업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다.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대학병원의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환자 진료 등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실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서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응답했다는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 요구를 대폭 수용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로 반발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매년 정해진 인원을 증원할 지, 단계적으로 증원 규모를 늘려나갈 것인지 방법도 아직은 미지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이번에도 의대 증원을 실패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종합적인 의료개혁 청사진이 나온 만큼 인력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다. 10년 간 꾸준히 실행해 10년 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의료체계가 탈바꿈한 모습으로 바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